2012. 1.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터키의 러시아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건설 승인과 시사점

1. 터키의 러시아 및 아제르바이잔 가스관 건설 추진

□ 터키, 자국 영해를 통과하는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건설 승인

○ 터키 정부는 2011년 12월 흑해 구역에 있는 자국 영해를 통과하는 러시아 사우스스트림(South Stream) 가스관 건설을 승인함. 가스 통관료 책정과 관련하여 2011년 10월 가즈프롬과 터키 국영 가스관 운영회사인 보타스(BOTAS)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도 있었으나 터키 정부의 승인으로 인해 2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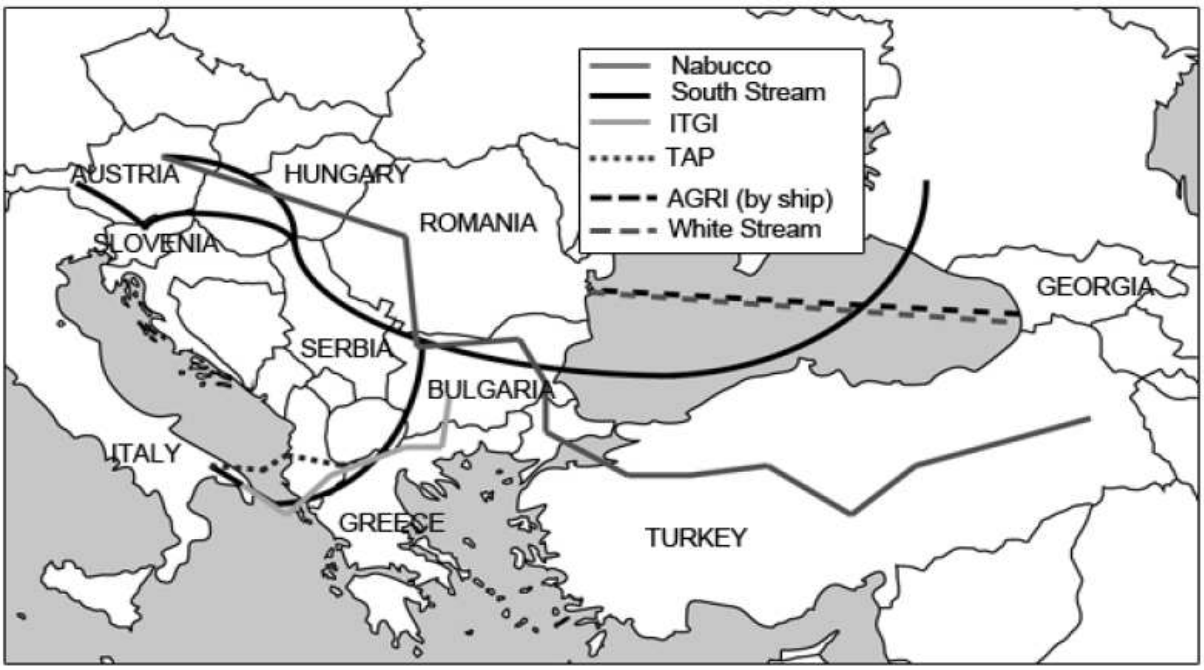
○ 이로써 러시아는 터키,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으로부터 사우스스트림 가스관에 대한 승인을 최종적으로 확보함[1]. 가즈프롬에 따르면, 이번 터키의 승인으로 동 가스관은 2015년경 완공될 예정임.

□ 사우스스트림은 러시아 제3의 가스관으로 건설될 예정

○ 현재 러시아의 대 유럽 가스 수출의 약 80%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은 양국간 빈번한 가격 논쟁을 유발하였으며 특히 2009년 초에는 러시아가 대 유럽 가스 공급을 중단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1) 사우스스트림 가스관은 러시아 흑해 연안에서 출발해 900㎞의 흑해 해저를 통과한 뒤 불가리아, 세르비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를 거쳐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노선과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거쳐 터키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나뉘며 3,200㎞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가스관이 될 전망임.

<그림> 터키 주변 주요 가스관 경로



자료: BMI.

○ 러시아는 자국산 천연가스의 대 유럽 수출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통과하는 기존 육상 가스관 외에 러시아 북부에서 발트해 해저를 지나 독일로 이어지는 노드스트림(Nord Stream)과 흑해 해저를 지나는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사업을 추진해 옴.

○ 러시아의 가스 수출경로 다변화시 2013년부터 연간 550억 ㎥의 가스가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통해 북유럽으로 공급될 수 있으며, 2015년부터 630억 ㎥의 가스가 사우스스트림 가스관을 통해 남유럽으로 공급될 수 있음.

- 러시아는 노드스트림의 두 노선 중 하나를 2011년 11월에 개통하였고 2012년 말 나머지 노선도 개통할 예정임.

○ 유럽연합(EU)은 노드스트림 및 사우스스트림 사업이 유럽 에너지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장악력을 강화할 것을 우려해 310억 ㎥ 규모의 나부코(Nabucco) 프로젝트[2]를 추진함. 그러나 가스 공급의 불확실성 및 상업성 등의 문제로 동 프로젝트 추진은 지연됨.

2) 카스피해 지역과 중동의 천연가스를 터키-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로 수송하는 노선으로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추진됨.

<표> 가스관별 컨소시엄 구성 및 규모

가스관	컨소시엄	연간 수송량 (억 ㎥)
Nabucco	RWE, OMV, MOL, Bulgarian Energy Holding, Tranzgaz, Botas	310
Interconnector Italy-Turkey-Greece(ITGI)	Edison, Depa, Botas	80
Trans Adriatic Pipeline(TAP)	EGL, Statoil, E.ON Ruhrgas	100~200
South East Europe Pipeline(SEE)	BP	100
South Stream	Gazprom, Eni, EDF, Wintershall	630

자료: BMI.

□ 터키-아제르바이잔 소아시아횡단가스관 건설 MOU 체결

○ 터키가 2011년 12월 말 아제르바이잔과 소아시아횡단가스관(Trans Anatolian Gas Pipeline, TAGP) 건설 MOU를 체결함에 따라 나부코 프로젝트는 더욱 타격을 받음. TAGP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아제르바이잔(Shah Deniz Ⅱ)에서 연간 160㎥의 가스를 생산하여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수송할 계획임.

○ 그러나 TAGP 프로젝트는 Shah Deniz 컨소시엄[3]으로부터 공급계약을 확보해야 하는데, 동 컨소시엄 소속 업체들의 일부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계획을 지원하고 있어 계약 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터키의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건설 승인에 따른 시사점

□ 터키, 에너지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3) BP, Statoil, Lukoil, Nico, TPAO 및 아제르바이잔 국영 가스회사 Socar으로 구성됨.

○ 터키의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승인 및 TAGP 관련 MOU 체결 결정으로 가스관 건설이 활발해질 전망임. 이에 따라 향후 터키는 에너지 허브(energy transit hub)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EU가 추진하는 나부코 가스관 사업은 불투명해질 가능성

○ 터키의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승인과 더불어 TAGP 건설 프로젝트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EU가 추진하는 나부코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추진이 곤란해질 전망임. 나부코 사업은 장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

○ 사우스스트림 가스관이 완공될 경우 나부코 프로젝트의 추진가능성은 러시아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됨. 사우스스트림 가스관이 기존 육상 가스관과 별도로 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동 육상 가스관을 대체할 경우 나부코 프로젝트는 향후에도 여전히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유럽 가스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장악력 지속

○ 푸틴 러시아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미래에도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사업을 가속화하여 착공일을 2013년에서 2012년 말로 앞당길 것을 지시하는 등 양면전략을 취함.

○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의 가스관을 대체할 필요성이 줄어들 경우 사우스스트림 가스관의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책임조사역 김찬수(☎02-3779-5708)
E-mail : avik@koreaexim.go.kr